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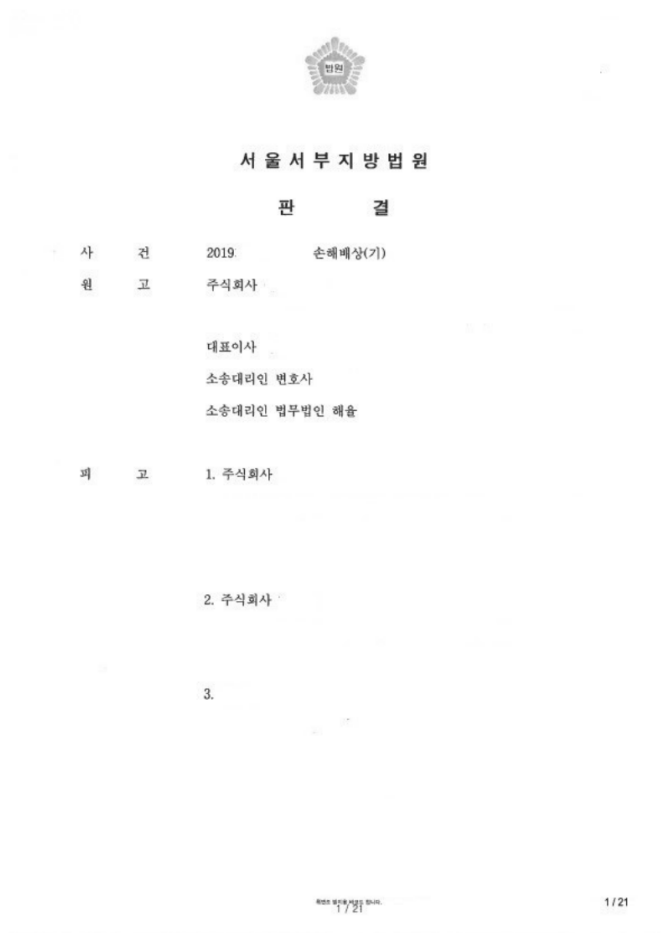
판결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회사 돈의 사용처가 문제 됐다면, 책임과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합계 4,269만 7,908원 인정

일부 승소

회사 자금 무단사용에 대한 배상 및 지연손해금





변 론 종 결 2019. 11. 15.
판 결 선 고 2019. 12. 1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는 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4.부터 2019. 1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피고 는 공동하여 197,9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9. 1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들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의뢰인 회사는 법인카드의 무단 사용과 법인 통장에서의 금원 인출을 둘러싸고 분쟁을 겪었습니다.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하던 사람과 관련된 자금 사용이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업무상 지출인지, 회사에 반환하거나 배상해야 할 금액인지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지출의 정당성이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한 금액 전부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이해관계와 개별 자금 사용을 법적 책임의 문제로 정리해 다룬 사례입니다.

02 의심을 넘어 지급 책임의 근거로

법인카드와 회사 통장에 관한 분쟁에는 여러 거래와 여러 관계자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입은 손해를 청구하려면 문제 삼는 사용 행위와 지급 책임, 요구하는 금액을 연결해야 합니다. 회사의 돈이라는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어느 상대방에게 어떤 범위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복수의 피고를 상대로 청구가 이루어졌고, 판결은 피고별 지급 의무를 나누어 정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단일한 총액뿐 아니라 누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 문제를 실질적인 배상 청구로 바꾸려면 책임 주체와 금액을 함께 다루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대응의 핵심

회사 자금의 사용 문제를 민사 청구로 연결하여, 상대방별 금전 지급 의무를 인정받았습니다.

받아야 할 돈, 떠안을 이유 없는 청구. 제대로 다투십시오.

회사 자금 무단사용 분쟁. 해율은 함께 4,269만 7,908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회사에서 빠져나간 돈을 반환받고 싶다면?
- 무단 사용한 카드 대금을 누가 갚아야 하는지 다투다면?
- 복수의 상대방에게 각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03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법인카드 무단 사용 및 법인 통장 인출과 관련한 민사상 손해 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 내부의 자금 사용 문제를 소송에서 판단할 수 있는 청구로 구성하고, 회사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회사 자금 분쟁은 내부 관계의 갈등과 금전 문제가 함께 얽히기 쉽습니다. 이 사건의 대응은 불신이나 의혹을 표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법원의 금전 지급 판단을 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해율은 회사의 입장에서 문제 된 자금 사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반환·배상의 재판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04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4,250만 원**과 별도의 19만 7,908원 및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후자의 금액은 해당 피고들이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청구 전부가 인정된 판결은 아니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성과는 회사 자금 사용을 둘러싼 분쟁에서 합계 4,269만 7,908원의 지급 책임을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돈을 누가 사용했는지에 관한 문제를 넘어, 반환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판결을 확보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자금 흐름과 사용 권한, 개별 거래의 목적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판결로 확보한 성과

합계 4,269만 7,908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명령, 금전 지급 부분의 가집행이 인정되었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회사 자금 무단사용 분쟁. 해율은 합계 4,269만 7,908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 계좌와 카드 내역을 손해액 자료로 정리해야 한다면?
- 상대방이 회사 돈을 쓴 사실이나 금액을 부인한다면?
- 내부 자금 문제를 민사상 지급 책임으로 묻고 싶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